

결혼이민여성의 초기 적응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The Study on the Facilitating Factors in Early Successful Adjustment of Married Female Immigrants

계명대학교 소비자정보학과
교 수 유 가 효
계명대학교 소비자정보학과
교 수 홍 성 희
계명대학교 소비자정보학과
부 교 수 김 성 숙

Dept. of Consumer Information Science , Keimyung University

Professor : Yoo, Ka Hyo

Dept. of Consumer Information Science , Keimyung University

Professor : Hong, Sung Hee

Dept. of Consumer Information Science , Keimyung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 Kim, Sung Sook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및 분석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factors that facilitate married female immigrants' early adjustment in Korea. For this purpose, 14 immigrated female participants living in Daegu were interviewed in-depth by using an open-ended questionnaire.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Through content analysis of participants' responses, three major factors were found to influence successful adjustment of married female immigrants personal factors, familial support and the social support system. Among the personal factors, having a

* 주저자 : 유가효 (ykhldj@kmu.ac.kr)

** 교신저자 : 홍성희 (hsh@kmu.ac.kr)

conservative marital attitude, optimism and liking the partner rather than economic concern for the reason of marital decision making are contributing factors to the successful marital adjustment.

Above all, familial support, a husband's good personality, care, and active support are the important factors in a foreign wife's adjustment and life satisfaction. Parent-in-law's help and tolerance play a role in a foreign daughter-in-law's successful adjustment.

In the social support system, joined activities and the support of friends from the homeland make a contribution to decreasing the sense of isolation and to giving mental well-being for married female immigrants. The center for support of multicultural family gives them the opportunity to meet people from their homelands and to expand the social network

Key Words : 성공적 적응(successful marital adjustment), 결혼이민여성(married female immigrants), 가족 지원(familial support), 사회적 지원(social support)

I. 서론

2005년 국내에서 신고된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간의 결혼은 총 31,180건으로 전체 결혼건수의 9.9% 수준이다.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결혼은 1990년대 중반부터 현저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0년 이후에는 일반적인 결혼형태의 하나로 자리 잡게 되었다. 특히 농촌지역의 결혼이민여성의 증가율은 더욱 커서 최근 발표된 2007년 경상북도 결혼이민자가족 실태조사에 의하면, 경상북도 내 여성 결혼이민자는 3469명으로 전년대비 4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외국인 여성의 결혼으로 인한 국내 유입이 수적으로 증가하면서 이들의 출신국도 다양화되어 2006년 우리나라에 체류 중인 여성 결혼이민자 중 한국계 중국인을 포함한 중국 출신이 가장 많은 63.2%이며, 베트남, 필리핀, 태국 등의 동남아시아 국가와 일본, 대만, 몽골, 중앙아시아, 러시아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행정자치부, 2006).

결혼이민여성의 수가 짧은 기간 동안 팽창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부상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결혼이민여성들이 지각하는 심각한 생활문제로 경제적 빈곤과 이로 인한 불만족의 문제가 있다. 즉, 외국인 여성과 국제결혼을 한 한국인 남성들의 소득수준이 대체로 낮고 사회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결과 경북도 내 결혼이민자가구의 41.9%인 1,454 가구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수준이었다. 따라서 경제적 어려움은 결혼이민여성의 가장 큰 불만의 원인이 되며(경북여성개발원, 2007), 부부갈등을 일으키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김오남, 2006). 또, 결혼이민여성들은 의사소통의 어려움, 문화적 차이, 남편이나 가족과의 갈등, 인권침해, 차별 대우 등으로 고통 받는 문제가 적지 않다(설동훈 등, 2005).

이와 같이 국제결혼 및 결혼이민여성과 가족이 겪는 사회경제적 문제가 증가하면서 2006년 한 해 동안 중앙 및 지방정부차원에서 결혼이민자를 지원하는 여러 가지 정책이 발표된 바 있다.

또 관련정책을 뒷받침하고 문제에 접근하기 위한 연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연구들은 주로 결혼이민여성의 생활

실태와 부부간의 갈등유형, 갈등의 배경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이러한 연구경향은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한 국가의 정책이 부재하거나 부족한 상태에서 이들에게 가장 먼저 관심을 보인 시민단체나 여성단체들이 극단적 인권침해나 가정폭력 같은 긴급한 사례를 해결하는데 우선한 결과 결혼이민여성들이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과정과 일상생활의 경험보다는 극단적인 경험이나 자신의 억울한 처지를 강조한 사례가 주로 소개되어 온 현상과도 관련이 있다.

한편 결혼이민여성과 그 가족이 경험하는 생활문제와 갈등의 배경을 연구하면서 갈등을 강화시키는 요인과 함께 감소시키는 요인들을 부분적으로 다룬 연구(김오남, 2006)가 있다. 또 이민여성들의 결혼기간과 체류기간이 길어지면서 자연스럽게 갈등이 감소하거나 여성이 개인적으로 갈등에 대한 대처방안을 모색한 사례를 밝힌 연구(최금해, 2005; 한건수, 2006; 최금해, 2007)가 일부 보고되었다. 그러나 이들의 적응을 다룬 연구에서도 주로 문화적인 적응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에 관심을 둔 결과 이들이 개별적으로 한국사회와 일상생활에 적응하는 정도는 어떤 수준이며 이들의 성공적 적응을 도와주는 요인과 배경은 어떤 것인지에 초점을 둔 접근이 거의 시도되지 않았다.

외국인여성의 결혼이민이 급증하던 초기에 이들과 결혼한 남성들은 대부분 농촌출신으로 결과적으로 농촌에 정착한 결혼이민여성들이 더 많다. 이들은 결혼 전 기대와 다른 농촌생활에서 한국여성들과 마찬가지로 자녀양육문제나 생활의 불편 등의 문제와 이로 인한 갈등을 호소함에 따라 연구대상이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여성들에게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는 결혼이민여성들이 인구규모에 비례하여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에도 많이 분포되어 있는 한편 이들의 도시거주환경은 농촌환경에 비해 주생활의 편의나 상업시설, 교육시

설, 교통수단의 확충 등 생활의 편의를 제공하므로 나아가 한국사회와 생활적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여성들이 농촌과는 다른 지역적 특성 내에서 적응해나간다는 점에서 도시환경적 상황을 반영하고 이들이 초기 적응과정에서 부딪히는 많은 문제점과 갈등에 어떻게 대처하면서 생활에 적응하며, 이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배경과 요인은 무엇인가를 파악하기 위해 체계적 관점에서 포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결혼이민여성의 성공적 적응은 여성 자신의 노력 뿐 아니라 여성이 처해있는 환경인 가족의 지지와 사회적 지지를 포함하는 다양한 체계 안에서 상호작용하고 상호 의존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도시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여성들이 초기 적응과정에서 일상생활의 문제를 스스로 극복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태도와 노력을 바탕으로 이들을 지원하는 가족과 사회의 지지를 통해 한국사회와 생활에 비교적 성공적으로 적응해가고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적응실태를 조사하고 성공적 적응의 촉진요인과 영향요인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I. 이론적 배경

결혼이민여성과 그 가족의 특성을 통계현황을 통해 알아보고,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이들의 생활적응양상과 그 배경을 파악함으로써 적응의 성공요인을 추출해낸다. 추출된 요인을 중심으로 한 성공적 적응의 개념들은 심층면접을 진행하고 결과를 분석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한다.

1. 결혼이민여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결혼이민여성의 출신국으로는 중국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법무부 자료에 의하면 2005년 말까지 여성결혼이민자의 대부분이 중국 재외동포로 41.6%였으며, 그 다음이 중국 20.1%, 베트남 11.1%, 일본 10.7%, 필리핀이 5.7%로 나타났다. 이중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는 나라는 베트남과 캄보디아이다. 베트남의 경우 2005년과 2006년 1년 사이에 무려 74%가 증가하였다. 중국의 경우 2005년까지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2006년에는 감소하였다. 전반적으로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출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평택대학교 다문화가족센터, 2007). 출신국에 따라 이민여성의 생활적응에서 겪는 어려움이나 이들에 대한 남편과 가족의 기대가 차이를 보일 수 있다. 한건수(2006)의 연구에서는 중국 조선족이나 우즈베키스탄의 고려인 출신 여성의 경우 남편과 시어머니가 같은 동포이므로 그들의 문화 역시 같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갖기 때문에 서구문화에 익숙한 개인적 가치를 가진 이들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었다. 또 한국의 생활양식에 가장 익숙한 것으로 평가되는 조선족 출신 여성들도 한국과 중국의 식생활에 공통적인 음식이 많지만 조리법이 달라 적응하기 힘들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이민여성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서울과 인천, 경기의 수도권지역이며 수도권 거주비율이 56.9%로, 2005년 센서스에 나타난 수도권의 인구 비율 48.2%보다 월등히 많다(법무부, 2005). 그 다음은 인천광역시(6.5%), 경상남도(4.7%), 부산광역시(4.7%) 등의 순으로, 대체로 지역의 인구규모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혼이민자의 거주지를 도시와 농촌으로 구분하면 도시 거주자가 76.5%, 농촌 거주자가 23.5%이며, 도시 거주자 중 대도시 거주자가 45.1%, 중소도시 거주자가 31.4%이다. 성별로 구분하면 여성 결혼이민자는 농촌에 거주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남성 결

혼이민자는 대도시 거주 비율이 비교적 높아, 남성 결혼이민자 중 도시 거주자는 90.7%이지만 여성은 74.7%이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2007)의 조사에 따르면 여성 결혼이민자의 연령은 20대가 44.1%로 가장 많고 30대는 33.9%, 40대 12.8%이며, 20세 이하도 6.3%에 달해 연령대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 남편과의 연령차가 평균 11.5세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결혼이민 여성은 어리고 그에 비해 한국인 남편은 나이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남편의 재혼율과 관련 있는데 외국인 여성과 결혼한 한국 남성 중 40%는 재혼이었으며, 이중 90%가 이혼 경험이 있다.

결혼이민여성의 학력은 연구(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7; 설동훈 외, 2006)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나 대체로 고졸이 가장 많았다. 또 결혼이민여성의 학력에 비해 한국인 남편의 학력은 비슷한 수준이나, 때론 여성의 학력이 남편보다 높은 경우가 종종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설동훈의 연구(2006)에서 결혼이민가족의 한국인 남편 학력수준은 전체 한국인 가족의 남편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2005)는 결혼이민여성 가구 절반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빈곤가구이고 기초생활수급자가 13.7%이며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가구도 상당수 있어 전반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 출신국별로 취업여부를 보면 여성 결혼 이민자 가운데 중국, 일본, 필리핀, 태국, 몽골 등의 여성은 대부분 본국에서 직장을 가지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91.7%의 높은 취업경험이 있었으나 한국에서의 취업은 59%로 본국에서의 취업에 비하면 저조한 수준이다. 지난 1년간 경제적 이유로 식비를 줄이거나 끼니를 거른 경험이 있는 결혼이민자구는 전체가구의 15.5%였으며 여성 결혼이민자 가운데 71.6%가 건강보험을 가지고 있고 4.8%는 의료급여 수혜자였으나 23.6%는 어떠한 의

료보장도 받고 있지 않았다(김현희, 2007).

2. 결혼이민여성의 성공적 적응에 관한 선행연구

지금까지 결혼이민자 가족에 대한 연구는 주로 일상생활실태와 생활에서 경험하는 생활문제의 규명에 집중되어 있다. 생활문제에 대해 양적방법으로 접근한 연구들은 주로 전국 규모나 특정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여성과 가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생활실태와 생활문제 전반을 조사하였으며, 일부 연구들은 생활문제에서 비롯된 부부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여성가족부, 2005; 김오남, 2006; 설동훈 외, 2006; 이명신, 2006; 이순형, 2006;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7). 한편 질적인 연구들은 심층면접을 통해 이들이 생활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갈등 및 적응 사례를 다루고 있다(한진수, 2006; 채옥희·홍달아기, 2007; 최금해, 2005; 한국염, 2004; 양철호 외, 2004). 이러한 연구에서 밝혀진 결혼이민여성들의 생활문제는 남편을 비롯한 가족과의 갈등, 경제적 어려움, 문화차이, 언어장벽, 자녀교육, 편견 및 차별, 외로움 등으로 집약된다.

한편 결혼이민여성들이 한국사회와 결혼생활에 뿌리를 내리는 과정에서 자신의 노력과 남편을 포함한 가족의 도움에 의해 언어를 빨리 습득하거나 일상생활에서 감지되는 차이를 최소화시키는 적응유형도 나타난다. 이들이 생활문제에 대처하고 적응하는 과정을 다룬 일부의 연구에서 나타난 적응사례와 성공요인은 언어와 일상생활을 비롯한 문화적응의 측면과 결혼생활, 가족생활을 포함하는 가족관계적응의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추출할 수 있다.

1) 일상생활과 문화

① 의식주생활 적응

음식과 주거양식의 차이는 결혼이민여성들

이 적응과정에서 경험하는 공통적인 문제로(한건수, 2006), 이들이 필요로 하고 배우고 싶어 하는 것으로 한국어 다음으로 한국요리법을 지적할 만큼 식생활 적응에 대한 욕구가 크다. 식생활에 대한 갈등은 남편과 가족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갖고 있으나 이들이 철저히 한국음식을 고집하기 때문에 여성들은 시어머니나 이웃을 통해 조리법을 배워나가는 방식으로 적응하기 위해 노력한다. 시모와 동거하지 않으면서 가끔 음식을 지원받거나 시모가 생존하지 않는 경우 모국음식을 해먹는 비율이 높으나(한건수, 2006), 인터넷으로 필요한 요리 정보를 얻어 활용하거나 한국음식을 중국식으로 변형시켜(최금해, 2007) 한국의 식생활에 적응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한국의 식생활에 대한 동화 요구는 대부분 큰 무리 없이 수용하며 적응해가는 경향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침대나 의자 등 입식의 주생활을 해온 여성들은 농촌의 좌식생활에 힘들어하며, 저렴한 침대나 소파를 구입하여 생활양식을 바꾸고 적응하기도 한다(한건수, 2006).

② 언어 적응

조선족이나 고려인 출신 여성들은 언어소통에 장애가 적기 때문에 일상생활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으며 정보를 구하기도 용이하다(김이선 외, 2006). 따라서 생활과 문화에 대한 적응이 빠르고 의사소통을 통해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반면 언어와 문화적 배경이 전혀 다른 출신국 여성들은 기본적인 의식주 생활에서도 긴 적응과정이 필요하다. 원활하지 못한 의사소통으로 인해 이민 여성은 소외감과 답답함으로 고통 받을 뿐 아니라 부부관계나 가족관계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원활한 의사소통은 가족관계의 질을 높이는 수단이기도 하다. 또 자녀교육을 위한 어머니 역할을 위해 한국어 습득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여 상당히 적극

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들은 간단한 회화책이나 포켓사전, 남편이나 가족의 도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한국어 학습을 시도하며 텔레비전이 중요한 통로였다 (한건수, 2006).

③ 문화 적응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부부갈등에 가장 큰 영향력을 준다는 연구결과(김오남, 2006)는 새로운 문화에 적응해야 하는 스트레스가 이민여성 개인 뿐 아니라 부부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러나 결혼이민여성과 가족이 서로의 문화 차이를 인정하고 이해하는 경우 여성이 초기 적응에서 부딪히는 어려움이 감소될 수 있다. 즉, 여성 스스로가 자신과 맞지 않더라도 한국에서 살기 위해 한국문화를 받아들이고 빨리 배우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구차순의 연구(2007)에서는 이민여성들이 확대가족 내에서 자신의 역할을 잘 해내기 위해 드라마를 보고 역할을 배우고 한국인이 되고자 노력한 사례를 보고하고 있다. 또 남편은 아내가 외국인이므로 한국문화에서 요구되는 면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이해하고, 다른 가족원들도 외국인 여성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 면이 있어도 개인적 기질에서 연유하기보다 풍습이 다름에서 오는 것이라 이해하며 문제를 최소화시켰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민여성들이 한국식 사고방식이나 생활습관을 배워가면서 한국식 가족주의, 공동체적 가치를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문화적응을 하게 된다.

④ 경제생활 적응

이명신(2006)의 연구결과에서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경험하는 어려움 중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을 비롯해 대부분의 연구(김오남, 2006; 경북여성개발원, 2007)에서

경제적 문제를 보고하는 것을 볼 때 결혼이민자가족의 경제적 상태는 매우 취약한 것으로 추측된다. 실제로 설동훈 등(2006)의 보고서에서 나타난 국제결혼가정의 가구소득은 한국 전체 가구소득의 59%, 생산직 가구 소득의 68% 수준이었고, 한국에서의 경제적 생활수준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의 결과 11점 중 3.8점으로, 거의 '하층'에 가깝게 느끼고 있었다. 즉, 이민자들은 보통 한국인 가족과 비교할 때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느끼고 있으며, 베트남여성만이 본국 가족에 비해 현재 한국에서의 생활수준이 더 나아진 것으로 본다.

반면 남편과 가족의 경제적인 지위나 출신국과 비교한 경제적 상태에 대해 만족을 나타내는 사례나 생활비를 전적으로 관리하게 되어 만족감을 느낀다는 사례(구차순, 2007), 소득이 높을수록 한국남성과 결혼한 일본여성의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이규삼(1999)의 연구결과에서 볼 때 남편의 안정된 직장과 수입, 가계경제권이 주어지는 상황은 초기 적응에 매우 긍정적인 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

2) 가족관계 적응

결혼이민여성들이 처음 한국에 입국하여 새로운 환경과 처음 만나는 가족에 자신을 적응시켜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가족의 환대나 남편의 자상한 태도는 가장 큰 지지체계이다. 또 시댁가족원의 지지나 성장한 자녀의 도움 역시 지지원의 역할을 할 수 있다.

① 부부관계

부부관계에 대한 믿음과 신뢰는 성공적인 결혼생활을 위한 조건으로, 남편의 사람됨이나 자상한 성격, 또는 자신에 대한 신뢰감 등은 자신이 선택한 결혼에 만족감과 앞으로의 결혼생활에 자신감을 준다. 남편이 자신의 외로움을 배려하고 자상하게 관심을 기울여주는 등의

태도에 고마움을 느끼거나 자신이 하고 싶어 하는 것을 남편이 다 들어주고 서로 상의하고 결정권을 주는 등 자신을 존중해주는 점이 가장 좋다는 사례(최금해, 2007)를 통해 원만하고 만족스러운 부부관계는 이들의 빠른 적응에 가장 핵심적인 기능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시부모 및 가족관계

구차순의 연구(2007)에서 이민여성이 입국해 처음 가족을 만났을 때 자신을 따뜻하게 맞이 해주고 가족의 분위기가 편안한 것에 안심했다는 사례에서 가족의 긍정적인 태도가 초기 심리적 적응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측된다. 시부모가 자신을 딸처럼 대하고 아들보다 며느리인 자신에게 상의하거나 한국인 며느리와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최금해, 2007) 등 가족의 인정을 받는 것이나, 시댁가족의 남성들이 모두 가부장적이지 않고 동서와 매우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례(최금해, 2005)는 시댁가족의 지지가 이들의 성공적인 결혼생활을 뒷받침해준다는 점을 보여준다. 홍달아기·채옥희(2006)의 연구에서도 시부모와의 동거는 자녀의 언어교육에 유리한 것으로 인식되어, 자녀가 성장하면서 생기는 의사소통에 대한 갈등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 이 연구에서는 일부 사례를 제외하고는 시댁식구들이 도움을 준다고 하여 가족의 도움과 지지 하에 적응해 나가는 것으로 보인다.

③ 자녀양육

결혼이민여성에게 자녀는 삶의 한 의미이고 자녀의 출산으로 인해 가족에 대한 애착과 결속감이 커지는 것은 한국여성과 같다. 여자들의 삶에 있어 성공의 의미를 자녀의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사례(최금해, 2007)에서 자녀를 통해 자기실현을 성취하고자 하는 방식으로 한국의 가족문화에 적응하려는 태도를 볼 수 있다.

또 이들은 모국의 자녀양육이나 교육방식과의 차이를 인식하지만 한국의 교육방식을 따르

기 위해 이웃을 통해 학원정보를 얻은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는 사례(최금해, 2007)에서 자녀교육방식에 적응하는 과정을 볼 수 있다.

3. 결혼이민여성의 초기 적응의 성공요인

결혼이민여성들이 생활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생활에 적응해나가는 과정에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적응의 성공요인을 추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성공적 적응은 개인적인 자질과 노력 등 본인의 내적 동기로부터 비롯되나 특히 적응 초기에는 가족체계 및 사회체계와의 상호관계와 상호작용에 의해 촉진된다는 점에서 개인적 자원과 가족차원, 사회적 차원의 지지로 구성하였다.

1) 개인적 자원

① 한국어능력

언어의 능숙함은 이민여성에게 지역사회의 서비스에 대한 접근과 배움을 유도하는 요인이며(Garcia, 2003; Nah, 1993; Goldman, 1999), 새로운 문화에 재정착과 적응과정에 영향을 준다. 반대로 언어장벽은 부부관계, 가족, 지역사회에 대한 접근을 다양한 방식으로 구속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어 습득과 의사소통능력은 의식주생활에 적응하고 가족관계를 정립해 나가는 생활의 다양한 국면에서 문제 해결의 동기를 제공할 수 있으며, 부부갈등과 아내 학대 등 문제 예방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또 자녀의 주 양육자인 어머니의 한국어능력이 자녀교육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므로 이민여성과 그 가족에게 언어 능력은 생활적응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인식된다.

② 긍정적인 가치관과 노력

결혼이민여성들은 일차적으로 다양한 생활

체험을 통해 한국생활에 적응하고 한국문화를 수용하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이들은 가족과 사회 안에서 이용가능한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국여성들보다 더 많은 어려움과 갈등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자신의 현실을 변화시키기 위해 우선 남편과 가족과의 관계를 변화시킴으로써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즉 자신의 노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최금해, 2005). 또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한국생활 적응에 성공한 사람들의 경험을 배워가면서 자기가 하기 나름에 따라 상황이 달라진다고 생각하는(최금해, 2007)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도 빠른 적응에 도움이 될 수 있다.

③ 자존감

김오남(2006)의 연구에서는 정신적 건강과 자존감을 포함한 개인 내적 자원이 이민여성의 부부갈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박정숙 외(2007)의 연구에서도 결혼이민여성의 생활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자아존중감으로 나타남으로써 이러한 요인들이 초기 적응과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자기실현욕구를 가지거나 한국생활 적응에 대한 자신감을 갖는 것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④ 자기 개발

의사소통에 큰 문제가 없는 여성들은 자신과 자녀교육을 위해 자기개발을 시도한다. 즉, 자녀를 둔 여성들은 교육열이 강한 한국에서 자녀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적극적으로 자기개발에 투자하여 운전면허, 컴퓨터 활용 등 여러 가지를 배운 사례나 한중 국제결혼 관련 사업, 중국어 과외, 학원 강사 등 자신의 현실에 맞는 일을 선택한 사례(최금해, 2005)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적응전략을

보여주며 더욱이 경제적 효과를 도모함으로써 한국사회에 동화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홍달아기·채옥희(2006)의 연구에서도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적응방식은 결혼지속연수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10년 이상인 여성들은 자신의 특기를 살려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러한 사례에서 볼 때 자기개발에 투자하거나 일을 함으로써 한국생활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다.

⑤ 결혼동기

결혼의 본질에 대한 생각과 현실이 일치하는지에 따라 한국생활 적응에 큰 차이가 난다. 한건수(2006)의 조사에서는 대부분의 조사 대상 결혼이민여성들이 한국 사회나 남편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을 결정하게 된 중요한 배경요인이 경제적 혜택에 대한 기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경제적 기대를 가지고 결혼한 여성들은 현실에 실망할 수 있는 반면 경제적인 면보다 결혼 자체에 기대를 가졌던 여성들은 좋은 평가를 하고 있다(최금해, 2005). 또 한국인 남편과의 국제결혼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연애와 사랑이라는 경험을 통해 결혼을 결정한 경우(최금해, 2007) 결혼과 생활에 대한 적응이 용이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의 결혼동기가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과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2) 가족의 지원

남편의 지지는 여성에게 위안을 주고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의 원천으로서 부부갈등을 감소시키는 요인이다(김오남, 2006). 또 이들은 배우자 이외에 시부모, 친척 등 지지체계에도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친밀한 가족관계는 결혼이민여성 자신과 그 가족에게 지지의 원천이 된다(Cottrell, 1990; Killian, 2001).

① 남편의 지원

결혼상대자인 남편의 지지는 이민여성의 결혼생활 적응에 가장 큰 영향요인이다. 홍달아기 등(2006)의 연구에서는 이민여성의 결혼지속연수에 따라 가정생활의 갈등에 대처하는 방법을 조사한 결과 10년 이상인 경우 남편에게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특기를 살린 일을 하는 것이 갈등을 해소하는 방식이었으며, 결혼 5-6년 정도의 여성들은 자국민과의 만남이 유효한 방식인 것에 비해 3년 이내로 짧은 경우 남편의 배려가 갈등 해소에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특히 초기 적응과정에 있는 이민여성들에게 남편의 이해와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결혼적응을 유도하는데 있어 남편이 주도자이며 정서적 지지자의 역할을 해야 하며 동반자로서 서로를 신뢰하는 부부관계로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② 시부모 및 기타 가족원의 지원

가부장적인 한국사회에서 남편과의 부부생활보다 시부모의 부양이나 확대가족과의 조화가 우선시되는 가족문화나 시부모나 시형제들의 간섭은 이민여성에게 또 다른 갈등과 부담의 원인이 된다. 그러나 시부모와 시형제들의 정서적 지지와 생활적응을 위한 도움은 이들에게 가족의 일원으로서 정체성과 소속감을 강화시켜주므로 결혼생활의 안정과 적응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③ 경제력

소득과 경제력은 결혼이민여성의 부부갈등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오남, 2006). 결혼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혜택은 자신이나 본국의 가족이 국제결혼을 결정하는데 배경요인으로 작용했으나 남편과 시댁의 경제력이 기대했던 것보다 어렵고, 자신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낮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갈등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비교적 큰 농사를 짓고 집을 새로 지은 경우나 모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적 사정이 좋다고 하는 사례에서는 남편의 경제력이나 생활수준에 대해 큰 불만이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한건수, 2006). 또 의사소통에 큰 문제가 없는 조선족 출신 여성의 경우 직업을 가짐으로써 경제력을 갖거나 시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것(최금해, 2007)도 한국생활 적응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경제력은 초기의 결혼생활에서의 안정과 성공적인 적응을 좌우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3) 사회적 지원

모국인 친구, 민간단체 등 사회적 지지는 결혼이민여성에게 대한 학대 예방과 감소에 절대적인 요인으로 나타났다(김오남, 2006). 결혼이민여성들은 한국문화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으로써 교회, 공공기관, 사회단체 등을 통해 한국어와 요리, 예절 등 생활적응 교육을 받고 있었으며 개인적 친분을 쌓은 교인들과 선물이나 자녀교육을 위한 정보 등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 있었다(김이선 등, 2006). 이와 같이 개인적으로 형성시킨 사회적 관계망으로부터의 사적, 공적 지원은 이들의 적응을 지원하는 자원이다.

① 모국인 친구

사회적 관계가 크게 제한되어 있는 이주여성들은 나름대로 관계망을 형성하고 있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모국 출신자와의 관계이다. 모국친구와의 관계망은 한국에 먼저 정착한 친구나 통일교 결혼의 경우 결혼과정을 같이 한 여성들과 친구가 된 경우, 최근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에서 언어, 요리 등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사귀는 경우, 온라인 동호회 모임 등 다양한 방식으로 형성된다.

모국인 친구는 부부관계에 정서적 위안, 안

정감과 친밀감을 유지시켜 주어 부부갈등을 감소시키며, 결혼만족을 향상시키는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특히 부부간 불화로 어려움이 있는 경우 모국인 친구와 가장 상담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보건복지부, 2005)이나 먼저 정착한 친구가 문화적응과 일상생활에 대한 대처방법을 자진해서 일일이 조언해주고 상담해 준 사례(구차순, 2007), 친목회를 만들어 서로를 지지해주고 정보를 주고받는 사례(최금해, 2007)도 모국친구 지지의 중요성을 확인해주는 결과이다. 특히 의사소통이 자유롭지 못한 초기 단계에서 모국어로 정보를 얻고 정서적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모국친구의 존재는 가장 유용한 자원이 될 수 있다.

② 종교기관의 지원

종교를 가진 여성들의 경우 종교가 초기 적응에 중요한 대처기재로 나타났다. 홍달아기와 채옥희(2006)의 연구에서 종교를 가진 이민여성들은 종교의 힘으로 한국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구차순(2007)의 사례연구에서도 이민여성들은 종교기관에서 한국어 수업을 받거나 같은 종교인의 조언과 심리적 지지를 통해 한국사회에 적응하면서 겪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정신적인 지원을 받기도 하면서 종교생활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느낀다.

③ 정부 및 기관의 지원

생활의 어려움으로 인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어 국가로부터 생계비를 보조받거나 남편이 병으로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관할 구청과 언론기관을 통해 성금을 지원받은(구차순, 2007) 사례는 단적으로 공적 지원체계의 지지를 보여준다. 또한 이들은 결혼이민자가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지원을 받기도 한다.

이와 같이 결혼이민여성들이 한국문화에 적응하기 위한 초기 과정에서 일차적으로는 언어 습득과 생활적응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며, 어느 정도 적응이 이루어진 후에는 모국의 생활 방식과의 양립을 위한 전략을 모색하기도 한다. 또 모국인 친구와 같이 어려움을 토로하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대화 상대가 있는 것이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 해소에 도움이 되며, 언어 소통이 가능한 여성들의 경우 사회활동을 하거나 직업을 갖는 것도 스스로 성공적으로 적응했다는 의식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다. 특히 자신의 특기를 살리거나 모국에서의 취업경험이 있는 여성들의 취업은 심리적 적응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

이와 같이 결혼이민여성의 한국생활 적응은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가족과 사회의 문제이며 특히 적응 초기에는 개인의 노력에 가족의 지지와 사회적 지원,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음이 밝혀졌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결혼이민여성들이 초기 적응과정에서 부딪히는 많은 문제점과 갈등에 어떻게 대처하면서 생활에 적응하며, 이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배경과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체계적 관점에서 포괄적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즉, 결혼이민여성의 성공적 적응은 본인 뿐 아니라 여성이 소속되어 있는 가족체계와 사회적 체계를 포함하는 다양한 체계 안에서 상호작용하고 지지받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한국사회와 생활에 성공적으로 적응한 사례를 중심으로 결혼이민여성들이 생활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생활에 적응해나가는 초기 과정의 실태와 그 과정에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개인과 가족차원, 사회적 차원의 지지로 범주화하고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여 조사와 분석의 틀로 사용하였다.

1. 결혼이민여성의 생활의 초기 적응과정은 어떠한가?
 - 1-1. 일상생활과 문화에 대한 초기 적응 과정은 어떠한가?
 - 1-2. 가족관계에 대한 초기 적응과정은 어떠한가?
2. 결혼이민여성의 적응의 초기 성공요인은 무엇인가?

- 2-1. 초기 성공요인으로서 개인적 요인은 어떠한가?
- 2-2. 초기 성공요인으로서 가족의 지원은 어떠한가?
- 2-3. 초기 성공요인으로서 사회의 지원은 어떠한가?

2. 연구 참여자의 선정

연구 참여자로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건강가정 지원센터 내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의 한국어교육 수강생으로 한국 체류기간이 1년 이상인 여성들 중 본 연구의 취지와

〈표 1〉 면접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면접 참여자	출신국	본인 연령	남편 연령	결혼년도 (입국년도)	본인학력 (남편학력)	혼전 직업 (남편직업)	자녀유무 (연령)	결혼 중개	시부모 동거
1	베트남	21	38	2006 (2007)	고졸 (고졸)	농사 (사업)	임신중	중개 업체	비동거
2	베트남	27	35	2006 (2007)	초졸 (고졸)	회사원 (회사원)	무	"	"
3	베트남	25	35	2006 (2007)	중졸 (고졸)	농사 (회사원)	무	"	"
4	베트남	20	35	2006 (2007)	고졸 (고졸)	농사 (회사원)	임신중	"	"
5	베트남	26	50	2003 (2004)	고졸 (고졸)	가사조력자 (기술자)	아들(3)	"	동거
6	중국(한족)	27	37	1998 (1994)	고졸 (고졸)	무직 (인테리어업)	아들(10) 딸(5개월)	연애	비동거
7	중국(한족)	32	40	2004 (2004)	대졸 (고졸)	교사 (회사원)	아들(4) 딸(9개월)	소개	"
8	중국(한족)	26	34	2007 (2004)	중졸 (고졸)	공장 (회사원)	무	연애	동거
9	중국(조선족)	29	42	2003 (2003)	고졸 (고졸)	공장 (회사원)	딸(5)	중개 업체	비동거
10	중국(한족)	37	44	2005 (2005)	고졸 (고졸)	미용사 (판매원)	아들 (10개월)	소개	"
11	우즈베키스탄	31	41	2003 (1999)	고졸 (고졸)	아르바이트 (회사원)	무	연애	"
12	러시아	26	40	2002 (2004)	대학중퇴 (대학원)	회사원	아들 (10개월)	"	"
13	필리핀	38	37	2007 (2007)	대졸 (고졸)	무직 (회사원)	무	소개	동거
14	필리핀	32	42	2001 (2001)	대졸 (고졸)	아르바이트 (회사원)	딸(10) 아들(4)	"	비동거

〈표 2〉 결혼이민여성 심층면접용 질문목록

연구문제	주요 영역	하위 질문
기본사항	기본사항	1. 개인과 가족의 특성 결혼연도, 본인과 남편의 연령, 학력, 본인의 결혼 전 및 현재 직업, 배우자 직업, 현재 동거가족, 주거상황 2. 국제결혼의 동기와 결혼생활에 대한 기대는? 어떤 과정을 통해 국제결혼을 했는가?
갈등과 적응과정	의식주의 차이	1. 출신국의 의식주생활과 차이가 많은가? 2. 현재 어느 정도 적응이 되었나? 3. 현재 의식주생활에 만족하는 정도는? 4. 결혼 전에 한국의 의식주생활에 대한 정보를 접할 기회가 있었나?
	언어 차이	1. 결혼 전(입국 전) 한국어를 접할 기회와 경로는? 2. 현재 한국어 능숙도는? 3. 나의 한국어 실력으로 인해 초기 및 현재 가족 내에서 갈등정도는? 4. 누구로부터(남편, 모국 친구, 센터, 기타 교육기관 등) 한국어를 배우고 있나? 5. 어떤 방법(교재, 대화, 드라마 시청 등)으로 한국어를 배우고 있나?
	생활방식과 문화의 차이	1. 생활방식에서 본국과의 큰 차이를 느끼는 부분은? 2. 본국에서의 생활방식보다 좋은 점이 있다면? 3. 한국에서의 일상생활의 전반적 수준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는가?
	경제적 생활	1. 현재 경제적 수준에 만족하는지? 2. 현재 경제적으로 가장 큰 애로사항은? 3.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 4. 친정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어야 하는 상황인지? 5. 경제적으로 돈을 벌고 싶다고 느끼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6. 취업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이유는?
가족 관계	부부관계	1. 현 배우자와의 결혼결심 이유와 배우자에 대한 기대는? 2. 배우자와의 초기적응에서 어려웠던 점과 현재 어려운 점은? 3. 현재 배우자에 대해 불만인 점과 만족하는 점은? 4. 배우자가 집안일을 돕는 정도는? 5. 배우자와 의견차이가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가? 조정방법은?
	시부모관계 및 가족관계	1. 시부모와 현재 동거하거나 동거한 적이 있는가? 있다면 동거의 장점과 단점은? 2. 시부모와 얼마나 자주 왕래하는가? 그들로부터 받는 도움은? 3. 남편의 가족들과는 얼마나 자주 왕래하는가? 그들로부터 받는 도움은? 4. 남편의 형제자매나 동서 등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아니면 상처를 주는가?
	자녀양육	1. (자녀가 있는 경우)현재 자녀양육에서 어려운 점은? 2. 배우자와 자녀양육을 둘러싼 의견 차이는? 3. 배우자가 자녀양육에 얼마나 참여하는지? 4. 본국의 자녀양육방식과 한국의 자녀양육방식의 차이점을 느끼는지?
사회적 관계	모국인 친구관계	1. 주변에 만나는 모국인 친구가 있는가? 2. 있다면 얼마나 자주 만나거나 통화하는가? 3. 만나면 주 대화의 내용은? 4. 친구와 나는 어떤 도움을 주고받는가? 5. 나의 가족은 모국인 친구와 만나고 도움을 주고받는 것을 좋아하는가(적어도 허용하는가)?
	한국인 친구, 이웃관계, 사회적 네트워크	1. 주변에 친구라고 할 수 있는 한국인이 있는가? 있다면 얼마나 자주, 어떤 방식으로 교류하고, 어떤 도움을 주고받는가? 2. 서로 방문하거나 도움을 주고받는 이웃이 있는가? 3. 정기적으로 만나거나 참여하는 모임이 있는가? (예: 종교집회나 모임, 모국인 단체, 남편의 친구 모임 등)
적응 요인	적응과정	1. 앞으로 본인이 이루고 싶거나 희망하는 생활은 어떤 것인가? 2. 한국에서의 생활에 적응하는데 가장 도움이 되었던 사람이나 기관은? 어떤 도움을 주었는가? 3. 현재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인가? 가장 만족하는 점은? 4. 앞으로의 생활이 지금보다 더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아닌지? 그렇게 전망하는 이유는? 5. 한국문화와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나는 어떤 전략을 써왔는가?

목적 이해하고 심층면접을 위해 개인과 가족의 정보를 제공할 의사가 있는 여성들을 선정하였다. 또 선정기준으로는 대구광역시 거주자로서 다양한 정보의 수집을 위해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출신국, 자녀유무 등을 고려하였다(표 1 참조).

3.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는 심층면접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고, 심층면접을 실시하기 전에 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을 실시하였다. 집단면접은 두 가지 목적에서 실시하였는데, 면접용 질문목록을 수정, 보완하기 위한 것과 심층면접을 보다 친숙한 분위기에서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것이다.

집단면접은 2008년 1월 16일에 2시간 30분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연구자들이 화제를 던지면 참여자들이 기본적인 인적 사항과 결혼 초기 적응에 어려웠던 점과 현재 적응상태, 도움이 되었던 점,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자유롭게 주고받으면서 서로 동조하거나 자신만의 독특한 사례를 소개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집단면접의 결과에서 확인된 사항을 통해 면접용 질문목록을 보완하였다.

심층면접은 2008년 1월 17일부터 4월 1일까지 총 14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참여자 개인별로 진행된 면담횟수는 최소 2회 이상이었으며, 1회당 2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본 연구에서 면접을 일관성 있게 객관적인 방식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다음과 같은 면접용 질문을 사전에 작성하여 활용하였고(표 2 참조), 1차 면접의 내용을 기록, 확인한 후 미비한 내용과 더 상세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다음 면접에 대비하였다.

4. 자료의 분석

면접을 통해 수집된 자료는 사례별로 내용

을 정리, 기록한 후 연구문제에 맞게 중요한 주제들을 범주화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의 첫 번째 단계에서는 자료를 범주별로 구성한 후 실태를 파악하였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성공적 적응실태를 중심으로 재구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성공요인을 추출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분석

1. 생활의 적응과정

본 연구에서는 생활의 적응과정을 일상생활과 문화 적응과 가족관계 적응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일상생활과 문화의 세부영역은 의식주생활, 언어, 문화, 경제생활을 포함하며, 가족관계의 세부영역은 부부관계, 시부모와 친족관계, 자녀양육을 포함한다.

1) 일상생활과 문화

① 의식주생활 적응 : 이제 아무거나 잘 먹어요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민여성의 의식주생활의 적응과정을 알아보기 위해 하위범주로 의식주생활의 차이, 적응의 어려움, 현재의 만족수준을 질문하였다. 면접결과, 의식주생활 적응과정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주요어는 '음식'과 '예절'이었다.

결혼이민여성들은 주로 식생활에 대해서는 '많다'라든가 '맵다', '짜다', '어렵다' '잘 못한다' '남편이 화낸다' '시어머니가 가르쳐 주신다' '요새 잘 먹는다' 등의 언급을 많이 했다. 우리는 참여자들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이자 과제로 인지되고 있었다. 특히 음식문화가 상이한 베트남 출신 참여자들은 요리가 어렵다는 반응이 많았다.

참여자2 '지금도 밥을 해먹지 않고 반찬은

사먹어요. 시장에서 만들어 놓은 것 그냥 사라고 남편이 해요. 시어머니가 없기 때문에 음식 가르쳐주는 사람 없어요. 남편도 안 가르쳐주고 못해요'

참여자1 '아직까지 음식을 잘 못하고 내가 음식을 만들면 남편이 맛을 꼭 봐요'

특히 한국과 음식문화가 유사한 중국출신 결혼이민여성의 경우 조선족들은 거의 음식문화의 이질감을 느끼지 않은 반면 한족들은 상당한 차이를 느끼고 있었지만 결혼한 지 오랜 지난 가정의 경우 음식문화에 적응하고 있었다. 한국에 온 지 4년이 넘은 참여자의 경우 아직 요리를 잘 하지 못하며 매운 음식은 잘 못 먹는다고 한다. 이러한 현상은 러시아 출신이나 필리핀 출신 결혼 이민여성에게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참여자들 가운데 결혼하지 1-2년 정도인 경우는 음식문화에 대하여 매우 어려움을 표현하는 반면 결혼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음식문화에는 적응이 된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음식문화의 적응은 시간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참여자4 '전에는 오뎅도 못 먹었는데 이제 맛있어요. 처음에는 베트남 음식을 먹었는데 남편이 싫어해요.'

참여자11 '음식이 많이 달라요. 비린내가 많이 나고 맵고 그렇습니다. 특히 술 문화는 나쁜 것 같아요. 지금은 익숙해 졌어요.'

참여자12 '고춧가루라는 것을 처음 보게 되었고 상당히 낯설었고 비위에 맞지 않아 고생했어요. 남편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서 호기심이 생겼고 조금씩 먹다보니 점점 익숙하게 되었어요. 회라는 음식도 한국에 와서 처음 맛보게 되었어요. 지금은 산낙지, 개고기를 제외하고는 모든 한국음식이 맛있게 느껴지는 정도가 되었어요.'

② 언어 : 말이 안 통하니까 오해도 많이 해요 언어문제는 조선족이나 고려인을 제외한 참여자 모두 공통적으로 느끼는 주제였는데, 주로 '가장 큰 문제'라는데 동의하였고 입국하기 전에 전혀 한국어를 접할 기회가 없던 경우가 많았지만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결혼한 경우 '약 6개월간의 공부기간'이 있었다고 하였다. 이들은 특히 '언어소통'의 어려움이 부부싸움 등 다른 문제들의 근본 원인으로 인식될 정도로 스트레스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이들이 가장 어렵게 느끼는 점은 글을 읽거나 쓸 줄은 알지만 그 뜻을 잘 모르는 것과 존대말이 어렵다는 것이다.

참여자12 '한국말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집안에만 갇혀있어야 했다. 그 시간들이 나에게 큰 고통이었고, 굉장히 우울한 시간이었다.'

참여자14 '처음에는 의사소통을 전혀 못했다. 말이 안 통하니까 오해도 많이 하고. 하고 싶은 이야기를 못해서 마음이 아팠다. 현재는 의사소통에는 어려움이 없지만 딸아이가 엄마 발음이 안 좋으니까 책 읽어주는 것은 아빠한테 하려고 한다. 또 말의 의미를 아직 잘 모르는 것이 있어서 깊은 의미를 잘 모른다.'

참여자2 '드라마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능한데 아직도 뉴스는 잘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참여자4 '시어머니는 한국말 많이 하지 않습니다. 사투리를 못 알아들어서 힘들어요. 어머니가 아휴 답답하다고 하세요. 심부름시키실 때 늘 답답하다고 하셨어요. 높임말도 너무 힘들어요.'

③ 문화 : 명절·제사가 너무 힘들어요

참여한 결혼이민여성들이 적응하기 어려웠던 생활방식 가운데 전통예절인 '절하기'가 있었다. 절하기에 대한 어려움은 좌식문화에 기

인한 것으로 보인다.

참여자13 ‘한국에 와서 가장 불편하였던 점은 좌식문화에 적응하는 거였어요. 항상 소파와 식탁을 이용하다가 바닥에 앉아서 식구들과 이야기 나누고 식사하는 것은 생소하고 불편했어요.’

참여자11 ‘다른 문화는 비슷한데 인사예법이 쉽지 않았어요. 우즈베키스탄에서는 껌안기로 모든 것이 끝나는데 여기서는 절을 해야 하는 것이 어려웠어요. 절하는 방법을 몰랐는데 다들 눈치껏 하라고 했어요. 배우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문화적응에서 참여자가 많이 언급한 것은 ‘명절’ ‘제사’ ‘아들과 딸이 차별이 있다’, ‘불편하다’, ‘비슷하다’ ‘개방적’ ‘심심해요’라는 말들이다. 우선 참여자들은 우리나라 명절과 제사가 많고 밤늦게까지 일이 계속되며 지나치게 음식을 많이 준비한다는 점을 공통으로 지적하고 있다.

참여자12 ‘처음에 명절, 제사를 준비하면서 러시아에서 접하지 못했던 부분이라 왜 그렇게 많은 준비를 해야 하며 늦은 시간까지 고생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러시아의 송년행사를 떠올리면 비슷한 맥락의 가족모임이라 생각했어요. 온 가족이 모여 함께 시간을 보내고 즐기는 문화는 비슷한 것 같아요’

아들과 딸 사이에 그리고 남녀간에 차별이 있다고 느끼는 경우는 주로 명절 때의 인사치레나 명절·제사 준비과정에서 많이 경험하고 있었다.

참여자11 ‘명절 때 남자가 4명인데 모두 누워있거나 일을 하지 않아서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참여자4 ‘1년에 제사 5번이나 합니다. 친척들 도와주지 않아요. 일요일에 가끔 오지만 다른 때는 오지도 않아요. 시어머님 오셔서 다 하시지만 저도 힘들어요.’

여가문화에 있어서 참여자들은 TV 시청이나 친구만나기 정도로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 참여자들 대부분 ‘심심하다’라는 말을 많이 했는데 결혼 초기 남편이 출근한 후 외출하기도 어렵고 장보기도 혼자 할 수 없어서 할 수 있는 일은 드라마시청밖에 없다고 한다.

참여자4 ‘결혼이민자지원센터에 나오기 전에는 혼자 TV보고 심심해서 많이 자요. 남편 회사가고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 머리 아파요. 밖에 놀러나가는 것 좋아해요’

참여자5 ‘시어머니가 친구만나는 것을 처음에는 안 좋아했으나 내가 집안일을 다 해놓고 가고, 어쩌다 한 번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친구 집에 놀러가는 것을 뭐라고 하시지는 않아요.’

④ 경제생활 : 기대보다 생활하기는 편리하지만 돈도 벌고 싶어요.

참여자 대부분 한국의 경제생활에 있어 ‘편리하다’ ‘살 것이 많다’ ‘시장보기 좋다’ ‘마트가 깨끗하다’ 등 생활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만족감을 나타냈다. 반면 경제생활수준에 대해서는 불만족한 경우가 만족한 경우와 거의 비슷한 정도로 나타났다. 일단 현재 경제수준에 만족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본국보다 잘 살아요’ ‘살만해요’ ‘남편 월급가지고 사는 데 힘들지 않아요’ ‘친정에 돈을 보내지 않아요’ ‘취업해서 돈 벌지 말라고 해요’라는 말을 많이 했다. 반면 경제수준에 불만족인 경우는 ‘남편이 돈 많이 벌지 않아요’ ‘생활비를 조금 줘요’ ‘저축을 할 수 없어요’ ‘아이 낳으면 돈이 더 많이

필요해서 안 낳을 거예요' '돈을 맡기지 않아요' '돈 벌고 싶어요'라는 말을 많이 했다.

이렇듯 현재 경제수준에 대한 만족도에서 차이가 나는 이유는 결혼 전의 기대수준이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경제생활에 만족하는 참여자들은 본국보다 돈을 더 많이 벌어서 좋다(참여자2), 돈 벌 기회가 많다(참여자14)고 평가한다. 반면 현재의 경제생활에 불만족하는 참여자들은 '한국에서 돈을 더 많이 벌어도 사는 건 형편이 없다'(참여자 12), '자녀양육비용이 너무 많이 들 것 같다'(참여자10) 등의 반응을 보였다.

그리고 참여자들은 경제권에 있어서도 다른 반응을 보였는데, 경제권을 가지는 경우는 대체로 현재의 경제생활에 만족하고 있었다. 그런데 경제권을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느끼는 경우가 있는 반면 경제권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반드시 경제적으로 불만을 가지는 것도 아니었다. 그리고 생활비를 조금씩 받는 것에 대해서 큰 불만이 없는 경우도 많았다. 이처럼 생활비를 월 10만원 수준으로 조금씩 받아도 크게 불만을 느끼지 않는 경우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한국 경제여건을 미처 파악하지 못하거나(사례5) 모국에서 상당히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어서 월생활비가 상대적으로 큰 액수로 느껴지기 때문이기도 하다(사례 1, 3, 4). 또한 이들은 본인이 필요한 물건만 사준다면 경제적으로 만족하는 경향을 보였다.

경제생활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은 남편의 수입 규모인데 대체로 '장애나 사고'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거나(사례5), 수입이 100만원이하인 경우(사례7) 경제생활에 대하여 불만족하고 있었다. 경제생활에 불만족하는 참여자의 경우 강력하게 '일자리'를 희망하였는데 대체로 그 이유는 결혼동기에서 찾을 수 있었다. 즉, 결혼동기가 '한국 가서 돈 벌고 싶다'고 느낀 참여자는 친정을 도와주어야 한다거나

저축에 대한 목표가 뚜렷했다.

또한 참여자들은 남편의 재산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는 시부모와 남편이 거의 대부분 수입지출 관리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산상태에 대해서도 잘 알려주지 않았다. 남편의 재산에 대해 이들이 알게 되는 경우는 주택대출금을 상환할 때 정도이며 집값이나 저축액에 대해서 무지한 경우가 많았다. 이들은 그 원인을 '외국인이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사례5 '처음에 월급을 본인이 없을 때만 시모에게 준다든가 남편 명의 아파트가 있는데도 말 안 해준다. 동서에게도 말 못하게 시모가 시키고 시모는 나에게 항상 돈이 없다는 말을 한다.'

사례6 '한번은 신랑차를 시댁에서 부모님들이 현금으로 사주었는데 나에게서는 대출받아 샀다고 거짓말한 것을 결국 내가 알게 되어 크게 싸웠어요.'

출신국별로 일상생활과 문화면에서 적응과정은 다소 차이가 나타났다. 음식문화나 언어에의 적응에서는 출신국별로 차이가 없었으며 공통적으로 어렵다는 반응이었다. 중국출신 결혼이민여성들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유교문화권이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 예절이나 풍습, 그리고 성별 가치관 등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는 반응이 많았다. 반면에 베트남이나 러시아, 필리핀 출신 결혼이민여성의 경우 우리나라의 풍습이나 성별 가치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이 종종 있었다. 하지만 본 연구의 사례수가 14사례에 불과하고 중국출신들 가운데 조선족이 포함되어 있어 출신국에 따른 반응을 일반화하기는 무리가 있다. 출신국별로 경제생활에 대한 적응과정을 보면, 중국이나

러시아출신 참여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불만을 표출하는 경우가 많았고 베트남출신 참여자의 경우 만족감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 또한 중국이나 러시아출신의 경우 결혼 기간이 베트남출신에 비해 길어서 자녀가 성장해 있거나 남편의 연령이나 사고 등으로 실직된 사례가 더 많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출신국별로 경제생활에 대한 만족감이 차이가 난다고 해석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2) 가족 관계

가족관계적 측면에서 결혼이민여성의 적응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부부관계, 시부모와 친족관계, 자녀양육 각각에 대한 적응과정을 살펴보았다.

① 부부관계 : 남편은 착하고 잘해줘요

남편에 대한 이들의 반응은 ‘착하다’, ‘잘해준다’ ‘말이 없다’ ‘다정다감하다’ ‘일 도와준다’가 공통적인 부분이다. 우선 이들은 남편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비록 장애가 있고 실업상태일지라도 남편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하였다. 이들이 남편을 평가하는 잣대에서 비물질주의적인 가치관을 엿볼 수 있었다.

참여자6 ‘말이 없는 편이지만 나랑은 이제 대화 잘 되요. 성격이 온순해서 좋아요. 잘해줘요. 특히 중국친지들 한국에 왔을 때 도와주는 일 많아서 우리 집도 어려운데 돈 많이 쓰는데 남편이 협조해 주는 것이 고마워요’라고 하였다.

참여자5 무슨 일이 있어도 이야기를 잘 안 하고 시모나 누나에게 얘기해요. 너는 그냥 가만있으라고 하고 말이 별로 없어요. 할 말만 해요’ ‘하지만 착해요. 욕하지 않아서 좋아요. 베트남 친구 중에는 남편이 때리는 친구

도 있어요.

또한 참여자들은 대체로 남편에 대하여 매우 가정적이라고 평가한다. 즉 따듯하고 자상하며 말로 표현하지 못하지만 많이 아껴준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가사에도 비교적 많이 참여하는 편이라고 평가하고 있었다. 또한 참여자들의 남편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보면 ‘남편이 친구가 별로 없다’는 표현도 종종 등장했다. 이는 남편이 외국인 아내와 함께 친구모임에 가는 것을 꺼리는 데서 기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참여자12 ‘아침에 일어나면 남편이 먼저 일어나 아기 기저귀 갈아주고 운동을 시키고 있다. 퇴근 후 피곤할 텐데 하루 종일 아기 보는 것이 더 힘들다고 청소를 도와 준다’

참여자8 ‘남편은 내 생각 많이 해줘요. 부모에게 이렇게 말해요. ‘아내는 한국문화 잘 모르니 가르쳐주면 좋아져요’라고요’

참여자11 ‘아플 때 집 청소 다 해주는데 자상합니다. 지금은 아침 일찍 가서 늦게 들어와서 일 도와줄 기회가 없지만요.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친구 만나러 다녀요. 모든 모임에 저를 데리고 다녀요.’

참여자7 ‘일 열심히 하고 술 안마시고 담배도 끊었다. 야근 근무하는 날 낮에 집에 있게 될 때는 일이 생기면 같이 나가거나 도와준다.’

참여자4 ‘남편 친구 별로 없고 술 담배도 안 해요. 주로 쇼핑하러 놀러가요’

참여자2 ‘남편이 집에 일찍 오는데 집안일도 잘해주고 별로 외출하지 않아요.’

참여자14 ‘남편이 친구도 별로 없고 오로지 가족밖에 모른다.’

② 시부모 및 친족 관계 : 시어머니는 시키는 것 없고 본인이 다 하세요.

시부모와 친족 관계에 대해서 참여자들은 ‘친엄마와 같이 좋다’와 ‘너무 간섭을 많이 한다’는 극단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우호적인 관계에 있는 경우는 친부모자식간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친밀하고 시부모를 매우 의지하고 있었다. 이에는 홀로 떨어져 있는 며느리에 대한 동정심이 작용한 듯하고 며느리에 대한 기대수준이 매우 낮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참여자11 ‘시어머니는 시키는 것 없고 본인이 다하시고 같이 하는 것 좋아하셔요. 저는 아파도 시집에 가요. 아픈 것을 잘 안 보여줘요. 왜냐하면 신경 많이 쓰셔서 얘기 안 하는 게 좋아요’

참여자12 ‘시아버지가 조금 권위적이기는 하지만 나쁜 분은 아니시란 걸 알기 때문에 괜찮다. 시어머니는 몇 개월 전에 만나게 되었지만 거의 매일 전화 통화하고 반찬도 자주 만들어서 가져다주신다.’

참여자8 ‘부모님이 처음에 반대하셨는데 결혼하니까 모든 게 해결되었다. 결혼하고 나서 좋아졌다. 같이 살면서. 친정엄마와 시어머니 똑같이 생각한다’

반면 시부모이외의 친족들 간에는 왕래도 많지 않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정도도 그다지 많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시누이의 간섭에 대하여 노골적으로 불만을 나타낸 사례가 있었는데 이는 우리나라 가족관계의 양상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다.

참여자14 ‘누님들의 간섭이 많아요. 같은 아파트동에 살면서도 아이를 낳을 때나 아파서 수술할 때도 병문안 온 적이 없고 아이들을 봐준 적이 없어요. 작은 시누이들도 전화도 없고 도와준 것 없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참견도 많이 하고 남편에게 요구하는 것이 많아요. 시어머님이 누님들 얘기들 많이 들어

서 처음에는 나랑 사이가 좋지 못했는데 지금은 용돈도 드리고 내가 돈 벌어서 남편 도와주고 하니까 고마워하시고 그 뒤로는 시누이들도 말을 많이 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무시했는데 지금 돈 버니까 달라졌어요.’

참여자 5 ‘무슨 일이 있어도 나한테는 이야기를 잘 하지 않아요. 시모나 누나에게 얘기해요. 한국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모르니까 이야기 안하는 것 같아요. 시누이가 아이가 6세 되면 유치원 보내라고 간섭해요. 어릴 때는 엄마가 키워야 하고 어린이집 보내지 말라고 남편에게 얘기했어요. 왜 형제가 하라는 대로 하나, 왜 일일이 얘기하나 하고 화를 낸 적이 있어요.’

③ 자녀양육 : 말을 잘 못하니까 책 읽어주기도 힘들어요.

참여자들 가운데 자녀가 있는 경우는 7명이었고 임신 중인 경우는 3명, 그리고 자녀가 없는 경우가 4명이었다. 우선 자녀가 없는 면접대상자들은 한명을 제외하고 임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희망하는 자녀수는 많지 않았다. 그 이유로 둘 이상 키우기는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 것 같다는 것이었다. 자녀가 있는 경우에 만자녀의 연령이 8세 이상인 경우는 2명, 만 3세 이상 8세 이하인 경우는 3명, 그리고 만 3세 이하인 경우는 2명이었다. 만자녀의 연령이 만8세 이상인 참여자는 공부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만 3세 이상 8세미만의 만자녀를 둔 참여자는 자녀양육의 도움을 받을 곳이 없어서 힘든 점과 자녀에 대한 교육비 투자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었다. 만 3세 미만의 만자녀를 둔 참여자의 경우 자녀양육에 따른 육체적 어려움을 언급하였다.

참여자12 ‘아이를 갖게 되면서 가족들은 나에게 많이 말했다. 닭고기 먹으면 안되고 매운 음식도 먹으면 안되고 미역국은 한달 동

안 먹어야 하고 외출은 백일이후에나 가능하고. 한국은 태교나 임신, 자녀양육에 있어서 러시아보다 극성맞고 아이들을 과보호하는 것 같다'

참여자7 '큰 아이가 생후 40일에 폐렴으로 입원했고 둘째도 폐렴으로 입원한 적이 있는데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아이가 어린이 집에서 노래 배워 오는데 내가 한국 동요를 몰라서 못 불러준다'

참여자14 '한국말을 잘 하지 못해 책읽어 주기가 힘들어요.. 대신 남편이 매우 적극적이고 책도 읽어주고 공부도 가르쳐 줘요. 아이가 엄마는 발음 좋지 않으니까 카세트테이프 들었다고 하고 스스로 노력한다.'

자녀양육방식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살던 모국에서나 여기서나 자녀를 위하고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크게 차이가 없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아이들을 과잉보호하고 과투자를 하는 것 같으며 간섭이 많다는 의견도 있었다.

참여자9 '어린이집에서 오면 1시간정도 놀이터에서 자전거를 타게 하거나 놀게 하고 겨울에는 추우니까 집에서 컴퓨터 게임 등 하고 싶은 것 하게 한다. 주변 사람들이나 손위 동서도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고 학습지 등 많이 시키는데 그건 엄마 욕심이고 어릴 때는 자유롭게 강제로 시키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남편도 딸에게 이것저것 시키는 것 반대하고 아이들은 자유롭게 키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은 자녀에 대한 투자, 간섭이 많다'

출신국별로 가족관계의 적응과정을 살펴보면, 출신국에 상관없이 남편과의 관계는 우호적이었으며 남편에 대한 평가 역시 유사하였다. 반면 시부모관계나 친족관계에서는 베트남 출신 참여자보다 중국출신이 더 부정적인 반응

을 보이는 경우가 있었다. 이런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중국출신 참여자의 경우 결혼기간이 다른 출신국 참여자에 비해 월등히 길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즉 결혼기간이 긴 참여자는 그렇지 않은 참여자에 비해 시부모 및 친족간의 갈등에 더 많이 노출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부모와 친족과의 관계는 그들의 성격이나 가치관 등에 의해서 좌우되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출신국에 따른 차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자녀양육에 있어서도 임신을 매우 희망한다든지, 자녀교육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거나 사교육비를 걱정하는 등 한국사회에서 보편화되어 있는 자녀양육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적응해가는 것으로 보이므로 출신국별로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성공적 적응의 요인

지금까지 생활의 적응과정을 일상생활과 문화, 가족관계의 측면에서 상세히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기존 연구에서 나타난 사례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비교적 적응이 양호한 편에 속하는 사례라고 평가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주제는 이들의 초기적응과정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했던 영향요인을 찾는 것으로, 이들에 대한 심층면접 결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그 요인들을 추출할 수 있었다, 첫째는 개인적 요인으로 가치관, 성격, 결혼동기, 기대수준이다. 둘째는 가족의 지원으로 남편의 지지, 시부모와 친족의 지지이다. 셋째는 사회의 지원으로 이웃이나 친구의 도움, 사회단체나 종교단체의 도움, 그리고 정부의 도움이다.

1) 개인적 요인

- ① 결혼가치관 : 아이도 있고 결혼했으니 이혼하기는 싫어요

참여자들과의 심층면접에서 느낀 점은 이들의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매우 전통적이었던 점이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혼에 대해서는 극도로 기피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경향은 이혼 후 생활에 대한 두려움이 어느 정도 작용하고 있겠으나 그보다는 이혼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더 결정적인 것으로 느껴졌다.

참여자6 '남편이 장애인이고 결국 병까지 걸리고 이렇게는 힘들어서 살기 싫다고 생각했지만 이혼하겠다는 생각까지는 하지 않았어요. 못 살고 그냥 돌아간다는 게 부모님한테 미안하고. 남편이 있는 대구에 잠시 와서 병원치료 받는 동안 몸은 병들고 희망이 없는 것 같아 자살하려고 했어요. 약을 먹었어요. 남편이랑 시댁이랑 모두 놀랐어요. 시아버지가 아무리 부부가 싸워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살라고 했었는데 이때는 살기가 정 힘들면 이혼해라고 말했어요. 이혼은 안하겠다고 하니.....'

참여자5 '남편이 잘해주고 성격이 착하다. 하지만 나이차가 많이 나 부담스럽다. 생각이 틀린다. 결혼할 때는 나이차가 많이 난다는 생각 못했는데 후회된다. 그러나 이미 결혼했고 아이가 있어 어쩔든 적응하려고 한다.'

② 낙천적인 성격 : 다 잘될 거예요

참여자 대부분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객관적으로 볼 때 실업, 장애, 노령 등 좋지 않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행복하다고 당당히 표현하고 있었고 미래는 더 잘 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참여자7 '어디 가서나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긍정적인 성격으로 국제결혼에 대한 걱정이 별로 없었다. 열심히 살아야겠다. 남편하고 잘 살아야겠다. 다른 것은 걱정되지 않

았다. 둘이 열심히 하면 괜찮다고 생각한다. 남편이 돈 없어도 상관없다'

참여자12 '경제적인 어려움보다는 내가 정말로 힘들었던 것은 외로움과 무기력감이었다. 나의 가족과 친구들에게서 멀어졌고 말이 통하지 않고 낯선 땅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없다고 느껴졌던 그것이 나를 힘들게 했었고, 이것이 증상으로 나타나 병원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내가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가장 좋은 계기는 책을 통해서이다. 앞으로의 생활에 있어서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크게 다가오는 것은 사실이나 난 잘 할 수 있을 것이고 잘 될 거라고 믿는다.'

참여자10 '아기 크면 같이 돈 벌고 괜찮아요.'

참여자2 '앞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잘 살 것 같아요'

③ 결혼동기와 기대수준 : 잘 살려고 왔는데.....

본 참여자들 가운데 결혼동기를 보면 한국에 취업을 위해 입국해서 생활하다가 혹은 모국에서 친지의 소개로 소위 '연애결혼'을 한 경우 결혼만족도가 높았으며 참여자11과 참여자8, 참여자12, 참여자6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였다. 또 먼저 한국인과 결혼한 친지의 소개로 결혼을 하게 된 경우가 있었는데 참여자7, 참여자13이 여기에 속하였다. 그 외 경우는 결혼중개회사나 종교단체를 통하여 결혼하게 된 사례들이었다.

연애결혼에 해당되는 친지의 소개를 제외하고 결혼중개회사나 종교단체를 통하여 결혼한 참여자들은 국제결혼에 대한 선망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두려움이나 거부감이 별로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베트남에서 결혼중개회사를 통하여 결혼한 경우 만난 지 2일 만에 결정한 경우가 통례로 이들은 한국 드라마를 통하여 한국에 대한 선망과 같은 것이 있

는 듯 보였고 그 선망의 대부분은 경제적 부유함, 외모, 부지런함 등을 내포하고 있었다.

참여자2 ‘베트남 남자들 술 많이 먹고 열심히 일하지 않고 싫었어요.’

참여자4 ‘주변에 한국인들 부지런해요. 드라마에서 한국 사람들 잘 생겼어요.’

참여자2 ‘한국 영화 보니까 재밌고 한국사람 잘 생겼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신랑 조금 괜찮아요.’

참여자5 ‘친정집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싶었어요. 동네 사람 중 외국인과 결혼해 돈을 많이 보내고 집도 지은 사람 많아요.’

참여자12 ‘러시아, 우즈베키스탄에서는 한국은 풍족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는 희망의 나라이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2) 가족의 지원 : 시부모가 친정부모와 똑같아요

참여자들 모두 적응에서 가장 큰 도움이 되었던 부분은 남편이라고 서슴없이 말하고 있었다. 가족의 지원에서 특히 남편에 대한 의존이 매우 높았다. 그리고 참여자들의 심층면접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된 것은 시부모의 배려이다. 현재 높은 생활만족도를 나타내는 참여자들 대부분 시부모가 매우 잘해주었고 친부모처럼 생각하고 있었다. 한편 형제나 친척들의 지원은 희박했고 도움을 받았다는 경우는 몇 명되지 않았다.

참여자10 ‘남편이 많이 도와준다. 반찬도 다 해요. 내가 아기보고 남편이 음식준비 다 해요. 시간 있으면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시어머니도 잘해줘요. 자주 만나요. 1달 쯤 와계실 때도 있어요. 아기 보러 오고 아주 좋아해요. 시어머니 잘해줘요. 한국 반찬 못 만들었는데 시어머니가 해다 주고 잘 가르쳐줘요.’

참여자9 ‘가족이 너무 잘해주고 실수를 지

켜봐 주고 기다려 주었다. 특히 시어머니 일을 안 시킨다. 시집에 가도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고 하신다. 일하고 싶으면 하라고 하면서’ 가르쳐 준다. 그래서 배우고 싶은 마음이 든다. 남편은 민속촌, 왕릉, 시장보기 등 많이 데리고 다니면서 역사를 가르쳐 준다’

참여자12 ‘이제는 내 지갑에 남편의 카드도 있고 내가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언제든지 준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와 자주 연락하고 만난다. 남편이 한국에 없었던 내 생일에 시아버지께서 케익을 가져다 준 적도 있고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내가 아기 때문에 피곤할 거라며 늘 잘해줘야 한다고 얘기한다. 나를 아주 많이 생각해 주시는 것 같다.’

참여자2 ‘드라마는 잘 알아듣는데 어려운 것은 남편이 통역하거나 설명해 준다. 한국 역사프로그램 잘 보고 남편이 잘 가르쳐 준다. 초기에 물건 사는 것, 우체국 은행일 보는 것 모두 남편이 알려줬다. 또 내 수입은 남편이 간섭 안한다. 뭐먹고 사고 싶으면 다 내가 할 수 있고 남편이 사준다.’

참여자5 ‘형제 관계가 좋다. 시동생이나 동서가 많이 도와주고 잘 해주며 가까이 산다. 시누이들도 가끔 잘 해 준다’

참여자 3 ‘남편이 큰 도움이 되었다. 시아주버님도 한글 공부하라고 10만원 주셨다’

참여자 8 ‘내가 사는 대구 근교에서 결혼이민자지원센터까지 시아버지께서 늘 태워다 주신다. 일주일에 3번 정도 나오는데 그 때마다 태워주신다.’

3) 사회적 지원 : 결혼이민자지원센터나 복지관에서 친구도 만나고 공부도 해요

사회적 지원으로 우선 사회복지기관의 지원이 이들에게는 효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결혼이민자지원센터나 복지시설을 통하여 한국어 등의 교육을 받음과 동시에 사회적 관계망을 넓히는 기회를 얻고 있었다. 결혼이

민여성은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고 쇼핑센터 이외에 마땅히 갈만한 곳이 없는 이들은 집안에만 있을 수밖에 없다. 또 이들이 특별한 목적 없이 외출하는 것에 대해 가족들이 좋아했을 리도 없다. 따라서 사회복지기관의 교육서비스는 결혼이민여성의 외부와의 소통 통로를 제공하여 단절 해소의 기회를 준다.

참여자14 '센터 프로그램이 너무 재밌다. 한글 글쓰기 도움이 되었다. 양육 도우미 도움을 많이 받았다. 남편이 좋아한다. 남편이 지난 가족여행에 참여하고 싶어 했다. 앞으로 친구 만나서 놀고 스트레스 풀고 싶다'

참여자12 '2년 전 결혼이민자지원센터에 와서 만난 우즈베키스탄 언니가 있다. 언니는 한국말도 잘하고 한국음식도 잘 만든다. 한국 생활을 나보다 먼저 시작해서 나에게 한국 문화를 잘 알려주었다. 아이를 낳기까지 친정어머니를 대신해서 병원에도 함께 가주었고 아기를 낳을 때에도 함께 해주었다. 산후 조리도 도와주었고 집이 가까워서 장도 같이 보러 다닌다. 언니 부부와 우리 가족은 자주 만나서 식사도 하고 얘기도 나눈다. 남편은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나 그 언니라면 항상 오케이다.'

두 번째로 참여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적 지원 부분은 모국인 친구집단이었다. 이들은 사적인 영역에서 모국인 친구들에게 매우 의지하고 있었다. 모국인 친구들은 사적으로는 고향이 같은 경우가 많았고 공적으로는 사회복지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때 사귄 모국이 같은 친구들이다. 모국 언어를 자유롭게 편하게 쓸 수 있어 마음을 깊이 나눌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참여자5 '주변에 만나는 모국 친구는 5~6명 정도가 있다. 요리 가르쳐 주고 시장 가르

쳐 주고 새로운 정보 준다. 베트남 음식 같이 만들어 먹는다. 전화해서 많이 물어보는 친구가 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친구와 만나고 '그러는 것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다.'

참여자14 '모국인 친구가 많이 도와준다. 힘들고 어려울 때 아이들을 봐주었다. 밥도 같이 먹고 생일잔치도 가고 그랬다. 병원 입원했을 때 작은 아기를 필리핀 친구가 돌봐주었다. 한국인 친구도 있는데 직장에서 사귄 친구들이다. 또 양육 도우미 선생님들도 친구가 되었다. 같은 아파트 한국인과 영어, 국어를 서로 맞바꾸어 가르치기도 했다.'

참여자7 '중국인 교회에서 만난 모국인 친구 한명과 출산 후 조리원에서 만난 1명 그리고 고향 선배 1명이 있다. 통화도 자주하고 시간 있을 때마다 만난다. 주로 집안일이나 좋은 일, 슬픈 일 서로 다 얘기하고 위로도 하고 조언도 해준다. 가족들도 모국 친구 만나는 것을 좋아한다. 심심해서 기분 안 좋아할 때 친구만나면 좋아지기 때문에... 한국친구들은 없다.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참여자13 '포항에 있는 고향친구에게 도움을 많이 받았다. 남편이 처음에는 한 달에 두 번 정도 포항 친구 집에 데려다 주었다. 친구 내외도 대구로 놀러오기도 하였다. 센터에서 한국어 수업을 들으면서 필리핀 친구들을 만난다. 다들 결혼기간도 더 길고 나이도 많아서 궁금한 것들을 많이 묻는 편이다. 센터에서 만난 대학생들과 선생님이 유일한 한국인 친구이다. 아직 마음을 터놓고 지내는 한국인 친구는 없다.'

참여자10 '주변에 만나는 중국친구 5~6명 있어요. 3~4일에 한 번 정도 만나요. 이야기도 하고 중국음식도 해먹고, 집에도 초대하고 같이 놀아요.'

하지만 참여자들 가운데 한국인 친구를 사귀는 예는 별로 없었고 마음을 터놓고 지내는

사이의 한국인 친구는 전혀 없었다. 더군다나 이들은 여전히 시부모나 친척이 없는 경우 도움을 요청할 곳이 한군데도 없으며 외롭다는 말을 하고 있었다. 이렇듯 아직까지 결혼이민 여성들과 한국인과의 융합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결혼이민여성이 한국인들과 친화될 수 있는 방법의 모색이 향후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럴 때 한 참여자의 지적대로 한국인의 폐쇄적인 마음이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되는 것 같다.

참여자14 '도와줄 가족이 없다는 것이 가장 힘들다. 출산할 때도 친정엄마가 대구로 오셨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

참여자5 '주변에 친구라고 할 수 있는 한국인이 없다. 동네 아줌마와는 인사하는 정도이다. 처음에는 교회 가지는 이웃아줌마도 있었다. 한국 사람들이 외국인이라 무시하는 것 같다.'

참여자9 '한국사람 사귀는 것이 어렵다. 한국 아줌마들 만나봤으나 마음 열어주지 않고 대충 때우는 것 같다. 진정한 친구, 마음 터놓는 친구 없는 것이 어렵다. 한국인은 친구 사귀는데 제약이 많다. 주부는 주부끼리만 친구 가능하다. 중국에서는 주부도 남자친구 있는데 여기는 그런 것을 가린다.'

참여자14 '앞으로 병원도우미나 교육도우미가 필요하다. 40대에 나이가 있는 사람이면 더 좋겠다.'

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이규삼, 1999; 김오남, 2006; 김이선 외, 2006; 박정숙 외, 2007)이 주로 문화적 부적응 및 가족관계의 갈등양상에 초점을 맞추는 등 문제중심적 접근이었던 것에 대해 이들의 초기

적응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규명하고자 하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다. 이를 위하여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에서 한국어 교육을 받고 있는 이민여성 중 비교적 적응을 잘하고 있는 14명의 결혼이민여성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하여 일상생활 및 가족관계에서의 적응실태를 조사하고 적응촉진요인을 개인적 요인, 가족의 지지, 사회적 지원의 3개 영역에서 추출해냈다. 나타난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개인적 자원 요인은 결혼에 대한 가치관, 성격, 결혼동기, 본국의 생활수준과 대비한 한국 생활의 기대 등의 측면으로서 결혼에 대해 비교적 전통적이고 결혼을 유지하겠다는 확고한 태도를 가졌을 때, 미래에 대해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보는 성격을 지녔을 때, 결혼동기가 경제적인 것보다 남편의 됴됨이가 마음에 들거나 연애결혼일 때, 또한 한국에서의 생활에 대해 기대감을 갖고 있었을 때 현재의 생활을 잘 받아들이고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의 지원 요인에서는 무엇보다 남편의 성격 및 배려, 적응을 도우려는 적극적인 협조 등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남편을 처음 보았을 때 외모에 대한 인상이 좋고 성격이 착해 보이는 점이 마음에 들었으며 결혼생활에서도 자신을 사랑해줄 뿐 아니라 가사협조 및 한국어 및 문화교육에 남편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가정에 충실하다고 보고했다. 또한 시부모 및 형제자매 등 친족들이 외국인 며느리에 대해 배려와 아량을 보이고 도움을 줄 때, 혹은 적어도 무리한 요구나 간섭을 하지 않을 때 현재 생활에 만족을 표현하였다.

가족의 경제적 측면에서는 가계관리를 전적으로 담당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지만 남편이 믿고 맡겨줄 때, 응답자가 원하는 것을 남편이 사주려고 애쓸 때 가족의 객관적 경제수준을

떠나서 만족을 나타냈다. 구차순(2007)의 연구에서도 결혼이민여성이 경제관리의 주도권을 가지게 되었을 때 행복해함을 보고하였다.

또한 사회적 지원이 응답자들의 생활적응에 커다란 촉진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는데 특히 출신국의 친구가 집 가까이 살고 있거나 자주 만날 수 있는 경우 남편이 직장에 나가 있는 동안 대화를 나누고, 출신국의 음식도 같이 만들어 먹으면서 향수를 달래는 등 외국에서의 생활에 서로 의지와 위로가 되어주고 있었다, 반면 한국인 이웃과의 접촉은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편으로 우리 사회에 결혼이민여성들이 늘어나면서 한국사회에 동화 융합되기보다 ‘그들끼리의 집단’ 속에 머무를 가능성이 있음도 시사한다. 그러나 최근에 전국에 확산되기 시작한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를 통해 만나게 된 본국이나 외국 출신 친구들이나 한국인 자원봉사자, 방문교사들과의 접촉이 이들의 네트워크를 확대시키는데 기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러한 기관들에서 이루어지는 남편이나 가족에 대한 교육뿐 아니라 기관에 다닌다는 사실 자체가 남편이나 시부모의 태도를 더욱 지지적으로 변화시키는 효과를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이 결혼이민여성의 초기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인들을 살펴보았는데 무엇보다 이들이 아직 결혼생활의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밀월의 시기일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자녀가 성장하면서 지출과 경제적인 압박이 커지고 결혼이민여성과 상당히 연령차가 있는 남편들이 퇴직이나 실직 등으로 가정의 경제적 기반이 위협받을 소지는 매우 높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이러한 가능성들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한국어가 보다 능숙해지고 어린 자녀들이 보육시설에 갈 정도로 성장하면 일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실제로도 불가피한 일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앞으로 결혼이민여성의 성공적인 적응을 지속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개인적, 가족적, 사회적 지원 측면에서 모색, 제안해보고자 한다.

첫째 결혼이민여성의 개인적 자원을 강화시키기 위해 즉, 자아존중감과 긍정적 사고,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즉 예를 들면 결혼이민여성이 가지고 있는 자원과 강점을 살릴 수 있는 것으로서 중국어나 영어 사용 필리핀 출신자들은 자신의 모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원어민교사훈련과정을 제공하고 초등학교 방과 후 교실 강사나 자국문화를 소개하는 다문화강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가족적 지원의 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결혼이민여성 남편들의 적극적, 긍정적 역할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확대가 필요하다. 결혼이민여성의 적응에 무엇보다 남편의 지원이 결정적임을 감안할 때 남편들에 대한 지속적 교육 및 자조모임결성을 통해 남편들이 적극적으로 외국인 아내의 적응을 돕도록 격려와 지지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시부모의 지원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그들이 문화가 다른 며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개별적 접촉이나 상담을 통해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셋째, 결혼이민여성 가족의 자녀들의 교육을 지원해줄 수 있는 사회적 지원체계의 확대가 필요하다. 이들에 대한 출산, 양육을 위한 준비교육뿐 아니라 부모역할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 직접적 자녀양육도우미 및 학습지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들의 경제상황이 자녀들을 위한 교육적 자극을 줄 수 있는 풍부한 환경을 제공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내에서 방과 후 교실과 연계된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다면 더 바람직할 것이다.

넷째, 결혼이민자지원센터에서 결혼이민여성 과 남편, 가족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여가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결혼이민여성이 한국에서의 삶의 질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에 비해 이들이 처한 경제적 상황은 그리 좋지 않음을 고려할 때 삶의 질에 대한 욕구를 어느 정도 충족시켜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한국노래 배우기, 가족 함께 요리 만들기, 출신국 동화 구연, 가족문화체험, 가족여행 등 문화적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제공되어야 한다.

다섯째,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어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성공적으로 정착한 결혼이민여성들을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에서 유급 자원봉사자로 활용, 정착초기단계에 있는 출신국 결혼이민여성들을 위한 동료 상담자, 자녀양육 지원자로서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도 그들의 자긍심 및 정체감 형성을 돕고 초기이민여성의 적응을 돕는데 효과적일 것이다.

여섯째, 이들의 초기 적응이 비교적 성공적이지만 잠재적인 경제적 불안이 클 뿐 아니라 나름대로 이에 대비하기 위해 취업욕구도 높았다. 따라서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교육이 필요하다. 직업교육은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에서 신규 프로그램으로 설치할 수도 있겠으나 현재의 역량으로는 제한적이므로 이미 각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고용지원센터나 여성인력개발센터 등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더 나아가 노동부 및 지방 노동청과 연계하여 지역 일자리에의 알선도 함께 지원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한 지역의 일부 결혼이민여성의 적응만을 조사했다는 점에 연구의 한계가 있다. 또한 남편들도 동시에 면접하여 조사했다면 적응과정과 영향요인을 보다 더 면밀히 규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이것은 후속

연구의 과제로 하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 1) 김오남(2006). 여성 결혼이민자의 부부갈등 및 학대에 관한 연구-사회문화적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18, 33-76.
- 2) 김오남(2006). 이주여성의 부부갈등 결정요인 연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3) 김이선, 김민정, 한건수(2006). 여성 결혼이민자의 문화적 갈등 경험과 소통증진을 위한 정책과제. 한국여성개발원.
- 4) 김현희(2007). 한국의 결혼이민 배경과 현황, 현대의 다문화가족. 한국민족연구원.
- 5) 김혜순(2006). 한국의 '다문화사회' 담론과 결혼이주여성 : 적응과 통합의 정책마련을 위한 기본 전제들.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 6) 구차순(2007). 결혼이주여성의 다문화가족 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20, 319-180.
- 7) 보건복지부(2005). 여성 결혼이민자 생활실태 조사 결과 및 보건복지부 대책방안.
- 8) 박정숙, 박옥임, 김진희(2007).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가족갈등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6), 59-70.
- 9) 법무부(2005). 여성결혼이민자 지역별 체류현황.
- 10) 설동훈, 이혜경, 조성남(2006). 결혼이민자가족실태조사 및 중장기 지원정책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연구보고서.
- 11) 설동훈(2007). 결혼이민자 유입과 다문화사회의 도래. 계명여성학세미나 발표논문.
- 12) 양철호, 김영자, 손순용, 양선화, 신봉관, 조지현(2003). 외국인 주부의 인권과 복지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127-149.
- 13) 이규삼(1999). 국제결혼가정의 부부갈등요

- 인에 관한 연구. 순천향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4) 정경희(2006). 토론 : 경상북도 결혼이민자 가족 실태와 통합의 가능성. 경북여성정책개발원 2006 국제여성정책 심포지엄 발표집 145-147.
- 15) 정일선(2006). “길찾기 - 경상북도 결혼이민자가족 실태와 통합의 가능성”. 경북여성정책개발원 2006 국제여성정책 심포지엄 발표집, 127-144.
- 16) 최금해(2005). 한국 남성과 결혼한 중국 조선족 여성들의 한국에서의 적응기 생활체험과 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5, 219-244.
- 17) 최금해(2007). 조선족 여성들의 한국결혼 생활 적응유형에 관한 질적 연구. 여성연구 72(1), 143-188.
- 18) 평택대학교 다문화가족센터(2007). 다문화가족 백서.
- 19) 한건수(2006). 농촌지역 결혼이민자 여성의 가족생활과 갈등 및 적응. 한국문화인류학 39(1), 195-243.
- 20) 홍달아기, 채옥희(2006). 사례로 본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정생활실태와 갈등. 한국생활과학회지 15(5), 729-741.
- 21) Cottrell, A. B.(1990). Cross-national marriages : A review of the literature. *Journal of Contemporary Family Studies* 21, 151-169.
- 22) Goldman, M.(1999). The violence against Women Act : Meeting its goals in protecting battered immigrant women. *Family and Conciliation Courts Review* 37, 375-392.
- 23) Killian, K. D.(2001). Reconstituting racial histories and identities : The narratives of interracial couples.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27, 27-42.
- 24) Nah, K. H.(1993). Perceived problems and service delivery for Korean immigrants. *Social Work* 38(3), 289-296.

- 접수일 : 2008년 4월 15일
- 심사일 : 2008년 4월 21일
- 심사완료일 : 2008년 5월 21일